

#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에 나타난

## 불교 세력의 동향

- 엔라쿠지(延暦寺)와 헤이케(平家) 멸망 구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백진숙\*

jjinee1226@hanmail.net

### Contents

- I. 서론
- II. 본론
  - 1. 불교 교단 내의 대립 구도
  - 2. 엔라쿠지(延暦寺)와 헤이케(平家)의 대립 구도
- III. 결론

### Abstract

『平家物語』は平家と源氏の争乱を描いた代表的な軍記物語である。しかし、『平家物語』には平家と源氏の歴史だけでなく、その時代を支配していたいろいろな政治・思想・宗教なども絡まれている。特に、仏教勢力の動向と平家の滅亡構図との関連性は注目すべきである。

本稿では、『平家物語』に登場する仏教勢力の中で、最も中心的に描かれている延暦寺の動向を通じて、平家滅亡と延暦寺の間にはどんな関係があるのか、その対立構図を中心に考察した。『平家物語』で、延暦寺は他の大きい仏教勢力である興福寺と園城寺とは対立関係をなしている。平清盛の場合も上記の二つの仏教勢力とは対立していたため、延暦寺と平家は力を合わせるようになった。しかし延暦寺は、平清盛と親密な関係を維持したというよりも、他の仏教勢力との対立など、利害関係によって動いたため、源氏勢力の浮上以後、源氏側へ移動することになる。『平家物語』は、このような延暦寺の移動が平家滅亡の一つの理由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強調している。また、仏教寺院の描写においても、興福寺と園城寺より延暦寺の方がずっと優位にあるということを繰り返している点から、『平家物語』の作者が延暦寺と密接な関係を結んでいることが分かった。これに加え、『平家物語』の作者は仏教に対する平清盛の蛮行を批判し、平清盛を仏法全体の敵と見なしているが、単なる批判だけに止まらない。これは、『平家物語』の中で仏教勢力間の対立について相当な部分が割愛されていることを見ても分かる。『平家物語』は、延暦寺の動向によって平家の運命が滅亡の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대학원

道を歩いていく過程を描写することで、延暦寺の神聖で強力なイメージを強調している。それと同時に、いろんな仏教勢力が滅亡していく過程を通じて、末世のような時代に対する嘆きをも盛り込んでいる。

Key Words : 仏教勢力, 平家, 源氏, 延暦寺

## I. 서론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sup>1)</sup>는 헤이안(平安) 말기에 새로운 집권 세력으로 대두하여 더할 나위 없는 영화를 누리던 헤이케(平家)가 겐지(源氏)와의 치열한 공방전을 거치며 점차 몰락해 가는 과정을 그린 일본 중세 문학의 대표적인 산문 작품이다. 『헤이케모노가타리』는 특정 작가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비파법사들의 가타리(語り)를 통해 전파되어 수많은 이본을 낳았다. 하지만 ‘기원정사(祇園精舎)의 종소리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울림이 있다. 사라쌍수(沙羅双樹)의 꽃의 색깔은 성자필쇠(盛者必衰)의 이치를 나타낸다(祇園精舎の鐘の声、諸行無常の響あり。沙羅双樹の花の色、盛者必衰のことはりをあらはす)’<sup>2)</sup>고 되어 있는 모두 부분은 모든 이본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으로, 이 때문에 불교 사상과 무상관이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작품을 읽다보면 모두와 간조마키(灌頂巻)를 제외하고는 무상관이 깊이 배어있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헤이케모노가타리』는 헤이케의 멸망을 통해 무상관으로 대표되는 불교

1) 이하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의 본문 인용은 高木市之助外校注(1983), 日本古典文学大系 『平家物語』, 岩波書店에 의하며, 이하 작품명은 『헤이케모노가타리』로 표기한다. 단, 인물명 등의 고유명사에 대해서는 각 장의 서두에는 병기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반복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2) 기원정사(祇園精舎)는 인도 중부에 있으며, 석가가 설법했다고 전해지는 사찰이다. 정사내의 무상당(無常堂)의 네 쪽 모서리에 있는 종은 아픈 승려가 임종할 때, 자연스럽게 울려서 제행무상이라는 구를 말함으로써 승려는 고통을 잊고 왕생한다고 한다. 또한, 사라(沙羅)는 상록수의 일종이며, 쌍수(双樹)는 사방으로 두 줄기씩 쌍생하는 나무를 가리킨다. 석가가 입멸했을 때, 쌍수는 말라서 하얗게 되었다고 한다.

사상만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은 결코 아닐 것이다.

『헤이케모노가타리』에는 헤이케의 흥망성쇠 과정 뿐 아니라 당시 또 다른 커다란 세력이던 불교, 신도(神道) 등 종교 세력의 동향도 나타나 있으며, 종교 세력은 헤이케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 관련성을 고찰함으로써, 종교의 사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과 같은 다른 측면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종교 세력이 헤이케 멸망에 끼친 영향과 그 관련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종교 세력 중에서도 헤이케의 멸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는 불교 세력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불교 세력 중 『헤이케모노가타리』에서 중심 세력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엔라쿠지(延暦寺)<sup>3)</sup> 세력으로, 작품 속에서 가장 강력하면서 유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쓰레즈레구사(徒然草)』<sup>226단</sup><sup>4)</sup>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엔라쿠지는 『헤이케모노가타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타리본(語り本) 중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가쿠이치본(覚一本)<sup>5)</sup>을 텍스트로 삼아, 엔라쿠지로 대표되는 당시 불교 세력의 정치적인 동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종교 세력 중 가장 강력하게 그려지고 있는 엔라쿠지와 다른 여러 세력들과의 대립이 헤이케의 멸망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3) 엔라쿠지는 천태종의 총본산으로 산문(山門)이라고도 불리었다. 헤이안쿄(平安京) 북동쪽 기문(鬼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후 왕성의 진호라 여겨져 왔다. 천태종을 개창한 사이초(最澄)는 818년 봄 난토(南都)의 소계(小戒)를 버리고 히에이잔(比叡山)에 대승계단(大乘戒壇)의 건립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 후 난토의 구 종교와 대립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후, 엔라쿠지는 905년 우다(宇多)법황이 등산수계한 이후부터 황실·섭관가의 신앙을 불러모으게 되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이 무렵부터 지카쿠(慈覚(円仁))·지쇼(智証(円珍))라는 양 문도(門徒)의 대립이 격심해져서 결국 993년 지쇼파 1000여명이 하산하게 되고 온조지에 의거하게 되었다. 산문과 지문의 대립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가마쿠라 말기에 이르기까지 산문의 승도들이 온조지를 7번이나 태우기도 한다. 승병화한 승도들의 폭행은 헤이안 시대 말기의 원정기에 가장 극심했으며, 좌주(座主)의 임명이나 사령(寺領)의 문제로 조정에 강소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 1095년부터 강소 때 히에(日吉)의 신여(神輿)를 메고 나오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이처럼 황실·귀족과 깊이 관련을 맺고 광대한 사령과 무력을 소유하게 된 산문은 그 자체로 강대한 권력구조를 이루는 때로는 현실의 정국을 좌우할 정도의 힘을 가지기도 하였다.

4) この行長入道、平家物語を作りて、生仏といひける盲目に教へて語らせけり。さて、山門のことを、ことにゆゆしく書けり。(神田秀夫外校注(1995) 日本古典文学新全集 『方丈記 徒然草 正法眼藏隨聞記 歎異抄』, 小学館, p.257)

5) 남북조 시대에 활약한 아카시 가쿠이치(明石覚一)라는 비파법사가 제자를 위해 남겼다고 전해지는 『헤이케모노가타리』로, 가타리계(語り系)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 관련성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 논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불교 교단 내의 대립 구도를 살펴봄으로써 엔라쿠지가 가장 강력한 종교 세력으로 대두된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파악한 뒤, 엔라쿠지의 동향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해 나갈 것이다.

## II. 본론

### 1. 불교 교단 내의 대립 구도

일본의 불교는 난토·호쿠레이(南都·北嶺)<sup>6</sup>를 중심으로 하여 발달하였는데, 특히 호쿠레이인 히에이잔(比叡山)은 교학 연구와 수행의 중심지로 부상하여 천태종의 고승들을 많이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가마쿠라(鎌倉) 신불교의 조사(祖師)들을 중심으로 겐신(源信)<sup>7</sup>·호넨(法然)<sup>8</sup>·신란(親鸞)<sup>9</sup>·니치렌(日蓮)<sup>10</sup> 등과 같은 다른 종파, 다른 사상의 지도자들도 많이 양성하였다.

난토·호쿠레이는 ‘仏法王法相依(불법과 왕법이 서로 의지하고 돕는다는 사상)’의 입장을 취하면서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종파의 틀을 넘어 불교도로서 힘을 합치곤 하였다. 특히, 천태종을 신봉하는 엔라쿠지와 온조지(園城寺)는 같은 종교적 자각 위에 연대를 깊이 해 왔다. 하지만 동란의 역사를 거치면서 불교계는 권력과의 대립뿐 아니라 불교계 내부에서도 심한 대립을 낳게 되는데, 같은 종파인 엔라쿠지와 온조지의 관계도 점차 악화되어 갔다. 『헤이케모노가타리』에 나오는 난토·호쿠레이도 이처럼 대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함께

- 
- 6) 흔히, 난토(南都)는 고후쿠지, 호쿠레이(北嶺)는 엔라쿠지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南都는 법상종을 전하는 도다이지·고후쿠지를 비롯한 시치다이지(七大寺) 세력을, 호쿠레이는 천태종을 전하는 엔라쿠지와 그와 근원을 같이하는 온조지 세력을 지칭한다.
- 7) 헤이안 중기 천태종의 학승(學僧)으로 통칭 혜신(惠心) 승도라고 한다. 『오조요슈(往生要集)』를 저술하여 정토종의 이론적 기초를 구축했다.
- 8) 일본 정토종의 개조로, 아버지의 유언으로 출가한 후 전념염불(專修念佛)로 돌아와 정토법문을 설교하였다 또한, 난토호쿠레이(南都北嶺)의 승도들과 법문을 논하기도 하였다.
- 9) 호넨(法然)의 제자로서 민중을 위해 포교와 신앙의 확립에 힘을 기울였으며, 호넨의 사상을 철저히 지켜 절대타력(絕對他力)의 본원을 주장하였다.
- 10) 니치렌슈(日蓮宗)의 개조(開祖)로 불법의 진수를 범화경에서 끌어내고자 하였다.

힘을 합쳐 권력에 대항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엔라쿠지라는 특정 불교 세력이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대두하게 되었는데, 본장에서는 엔라쿠지와 헤이케의 대립 구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엔라쿠지 세력이 대두하게 된 과정으로서 불교 종파간의 대립 양상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1-1. 엔라쿠지(延曆寺)와 고후쿠지(興福寺)의 대립구도

법상종의 교단 중 고후쿠지(興福寺)는 나라(奈良) 시에 위치한 난토시치다이 지(南都七大寺)<sup>11)</sup> 중 하나이다. 710년 헤이조쿄(平城京) 천도 직후에 후지와라노 후히토(藤原不比等)<sup>12)</sup>가 건립한 이후 후지와라(藤原) 씨의 우지테라(氏寺)로 유명해졌다. 신불습합 사상에 의해 가스가(春日) 신사의 수호신화(守護神化)를 피하기도 하여 승도들이 조정에 항의할 때, 엔라쿠지가 신여(神輿)<sup>13)</sup>를 메고 나왔던 것처럼 가스가의 신목(神木)을 흔들어대기도 하였다. 1180년 헤이케가 난토(南都)를 불태운 사건으로 인해 도다이지(東大寺)와 함께 전소되었지만, 그 부흥도 빨라서 가마쿠라 시대 이후에 다시 큰 세력으로 떠오르게 된다. 『헤이케모노가타리』에서 고후쿠지는 엔라쿠지와의 대립과 헤이케에 의해 절이 모두 불에 타게 되는 불법 멸망의 구도가 중점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헤이케모노가타리』에 난토·호쿠레이의 승려들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卷一의 『額打論』에서이다. 1165년의 니조인(二条院)의 장례식 날에 일어난 이 사건은, 천하의 군주가 돌아가신 후 묘소로 보낼 때 난토·호쿠레이의 승려들이 모두 수행하고 묘소 주위에 자신의 절들의 현판(額)을 거는 행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래 장례식 때 절들마다 현판을 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었는데 『헤이케모노가타리』에도 나타나 있는 당시의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나라(奈良)의 도다이지(東大寺)·고후쿠지(興福寺)·간고지(元興寺)·다이안지(大安寺)·야쿠지(薬師寺)·사이다이(西大寺)·호류지(法隆寺)의 총칭.

12) 나라 시대의 귀족으로 가마타리(鎌足)의 둘째 아들이자 고묘(光明) 황후의 아버지이다. 율령제도의 확립에 힘썼으며, 후지와라 씨 융성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다. 후지와라 씨 시케(四家)의 선조.

13) 제례 때, 신체(神體)나 위패를 모시고 메는 가마.

우선 쇼무(聖武) 천황의 기원에 의해 세워져 다들 만한 절이 없으므로 도다이지의 현판을 건다. 다음으로 단카이공(淡海公)<sup>14</sup>의 기원에 의해 세워진 고후쿠지의 현판을 건다. 北京에서는 고후쿠지에 상대하여 엔라쿠지의 현판을 건다. 다음으로 덴무(天武) 천황의 기원으로 교다이(教待) 화상, 지쇼(智証) 대사가 처음으로 세운 절로써 온조지의 현판을 건다. (卷一『額打論』)<sup>15</sup>

즉, 당시 현판을 거는 순서는 선례에 따르면, ‘도다이지→고후쿠지→엔라쿠지→온조지’ 순이었으며, 따라서 엔라쿠지는 고후쿠지 다음에 현판을 걸어야 하는 것이 원래 순서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 때 엔라쿠지의 승려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도다이지 다음 고후쿠지 앞에 자신의 현판을 걸게 되고, 이에 격노한 고후쿠지의 힘깨나 쓰는 중들이 엔라쿠지의 현판을 칼로 쳐서 떨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두 절의 대립에 불이 붙게 되고, 엔라쿠지는 자신들의 현판을 떨어뜨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고후쿠지의 말사(末寺)인 기요미즈데라(清水寺)를 불태우기에 이른다.

이후, 두 절간의 대립은 더욱 심해져 가고, 고후쿠지는 온조지와 협력하는 구도를 보인다. 모치히토오(似仁王)<sup>16</sup>의 모반 사건 때에도, 온조지가 힘을 합쳐 헤이케를 물리치자는 호소문에 동조하여 지원을 보내나 도착이 지연되어 모반 사건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이에 분노한 헤이케와 맞붙게 된다. 원래 헤이케는 무력 대결을 피하려 했으나, 고후쿠지의 승려들이 무력으로 맞서자 전투에 돌입하고 결국 시게히라(重衡)의 명령으로 절을 모두 태워 버리게 된다.

이처럼 처음에는 엔라쿠지와는 같등으로 시작된 대립 관계가 헤이케와의 대립으로까지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고후쿠지와 엔라쿠지의 같등은 어찌 보면 종교 세력의 다툼에 지나지 않아 『헤이케모노가타리』 전체 구도와 별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헤이케와 엔

14) 후지와라노 후히토(藤原不比等). 나라 시대의 귀족으로 율령제도의 확립에 힘썼다. 후지와라 씨 시케의 조상으로 후지와라 씨 융성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유명하다.

15) まづ聖武天皇の御願、あらそふべき寺なければ、東大寺の額をうつ。次に淡海公の御願とて、興福寺の額をうつ。北京には、興福寺にむかへて延暦寺の額をうつ。次に天武天皇の御願、教待和尚・智証大師の草創とて、園城寺の額をうつ。(『平家物語 上』, p.112)

16) 고시라카와 범황의 셋째 왕자이다. 1180년 미나모토노 요리마사와 싸고 전국의 겐지를 불러 모아 헤이케 타도를 계획하였으나 발각되어 온조지로 도망가는 신세가 된다. 이후, 난토로 가는 도중에 전사한다.

라쿠지가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헤이케모노가타리』는 고후쿠지의 멸망에 헤이케가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구도를 취함으로써 불교 교단 내의 분열의 원인을 헤이케에게서 찾고 있으며, 엔라쿠지에 대한 직접적 비판도 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2. 엔라쿠지(延曆寺)와 온조지(園城寺)의 대립 구도

온조지는 엔라쿠지와 마찬가지로 천태종의 총본산이며, 흔히 미이데라(三井寺)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또한 엔라쿠지를 산문(山門)이라 칭하는 데 대하여, 지문(寺門)이라고 칭해졌다. 천태종은 좌주(座主) 문제나 계단(戒壇) 문제로 자주 대립하게 되고, 결국 산문과 지문으로 분열되어 긴 투쟁을 거듭하게 된다. 특히, 모치히토오가 거병했을 때 온조지에 머물렀었다는 이유로 헤이케에 의해 불태워지기도 했는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는 이곳을 매우 숭배하여 재흥을 도왔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헤이케모노가타리』는 호쿠레이 내부의 엔라쿠지와 온조지의 대립 구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엔라쿠지의 승려들이 천태종의 좌주인 메이운(明雲)이 유배 가는 도중에 그를 탈환할 계획을 세우는 회의에서 ‘고후쿠지와 온조지의 조롱을 받지 않겠느냐(興福園城のあざけりにあらずや)<sup>17)</sup>’며 걱정하는 부분을 통해서도 암시되어 있다.

두 절의 내분이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고시라카와(後白河) 법황이 온조지의 고겐(公顕) 승정(僧正)<sup>18)</sup>을 사범(師範)으로 하여 온조지에서 관정(灌頂)<sup>19)</sup>을 받으려고 한 사건부터이다.

예로부터 관정과 수계(受戒)<sup>20)</sup>는 모두 우리 산(比叡山)에서 행하는 것이 선례이다. 특히 산노권겐(山王権現)이 교화하여 이끌어주는 것은 수계, 관정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엔 미이데라에서 관정을 행한다면 절을 완전히 불태워버려야 할 것이다.

(卷二 『山門滅亡 堂衆合戦』)<sup>21)</sup>

17) 『平家物語 上』, p.148

18) 승관(僧官)의 최상급. 후에 대승정(大僧正)·승정(僧正)·권승정(權僧正)으로 나뉜다.

19) 진언종(真言宗)에서 불문에 들거나 수도자가 일정한 지위에 오를 때 정수리에 향수를 붓는 의식.

20) 관정 전에 행해지는 의식.

21) むかしより御灌頂受戒、みな当山にしてとげさせまします事先規也。就中に山王の化導は受戒灌

엔라쿠지의 승려들은 소문에 대해 히에이잔에서 관정을 행하는 것이 선례라며 분노하고, 법황이 이를 감행할 경우 같은 교파인 온조지까지도 불태워버리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이로 인해, 고시라카와 법황은 온조지에서의 관정을 그만두고 시텐노지(四天王寺)<sup>22)</sup>로 고개를 불러들여 관정을 받게 된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 엔라쿠지의 힘이 온조지의 힘에 비하여 훨씬 강했음을 엿볼 수 있으며, 두 절이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헤이케모노가타리』에서의 엔라쿠지는 이처럼 조정까지 좌지우지할 정도의 큰 힘을 가진 세력으로 묘사되고 있다.

『헤이케모노가타리』는 나아가 이 두 절의 대립은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라면서 하나의 일화를 들고 있다. 지쇼(治承) 2년(1178년)에 겐레이문인(建禮門院) 도쿠코(徳子)의 순산을 기원하여 행해진 특별 사면에서 기카이가시마(鬼界が島)로 유배갔던 3명 중 순칸(俊寛)만이 소환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원령은 옛날에도 무서운 것이었다(怨靈は昔もおそろしき事也)』<sup>23)</sup>라고 상기되고 있는 라이고(頼豪)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 이야기는 시라카와(白河) 천황의 중궁인 겐시(賢子)의 황자 출산이 온조지의 라이고 아자리(頼豪阿闍梨)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의 일인데, 라이고는 그 상으로서 온조지에 계단(戒壇)을 설치해 줄 것을 희망한다.

지금 너의 소망을 이루어주면, 산문이 분노하여 세상이 조용하지 않을 것이다. 兩門(산문과 지문)이 다투어 천태의 불법이 멸망할 것이다. (卷三 『頼豪』)<sup>24)</sup>

천황은 이처럼 산문이 분노할 것을 두려워하여 라이고의 소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고, 라이고는 황자인 아쓰후미(敦文) 친왕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라 저주하면서 말라죽었으며 실제로 아쓰후미 친왕은 죽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수심에 찬 천황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엔라쿠지의 대승정 료신(良真)이 ‘항상 우리

頂のためなり。しかるを三井寺にてとげさせましまさば、寺を一向焼払ふべし。(『平家物語 上』, p.194)

22) 오사카에 있는 화종(和宗)의 총본산으로 쇼토쿠(聖徳) 태자가 건립한 사찰이다. 헤이안 시대, 극락세계의 문으로 여겨져 널리 신봉되었다.

23) 『平家物語 上』, p.227

24) 今汝が所望達せば、山門いきどほって世上しづかなるべからず。兩門合戦して、天台の仏法ほろびなんず。(『平家物語 上』, p.225)

산문의 힘에 의해 이러한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쉬운 일이지요(いつも我山の力にてこそか様の御願は成就する事候へ。やすい程の御事候)’<sup>25)</sup>라며 히에이잔에 돌아가 산노다이시(山王大師)에게 백일기도를 드리니 중궁이 백일 내에 회임을 하여 황자를 낳았다.

이전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라이고 관련 설화에서도 두 절의 대립 양상이 드러나 있는데, 고시라카와 법황처럼 시라카와 천황도 엔라쿠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헤이케모노가타리』에서는 현판을 거는 선례를 통해 이미 온조지 위에 엔라쿠지가 존재함을 암시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엔라쿠지의 힘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두 절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모치히토오(高倉宮)가 모반을 계획하고 온조지로 숨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때 온조지가 자신들의 힘이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에게 협력해주길 바라는 호소문을 엔라쿠지에게로 보내게 된다.

특히 엔라쿠지와 온조지 두 절은 두 개의 門(산문과 지문)으로 나뉘어 있지만, 배우는 것은 천태의 교문(教門)으로 같다. 예를 들면 새의 좌우 두 날개와 같으며, 또한 차의 두 바퀴와 같다. (卷四 『山門牒狀』)<sup>26)</sup>

이처럼 온조지는 힘이 강한 엔라쿠지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과 같은 천태종에 속함을 강조하는 호소문을 보냈다. 하지만, ‘새의 좌우 두 날개와 같으며, 또한 차의 두 바퀴와 같다’ 라는 문장에 엔라쿠지의 승려들은 심하게 분노하여 답장을 보내지 않는다. 엔라쿠지는 온조지보다 절대 우월하며, 이처럼 대등하게 쓴 문장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엔라쿠지와 온조지는 완전히 갈라져 직접적인 대립을 겪게 된다.

이상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헤이케모노가타리』에는 엔라쿠지의 우위가 드러나 있으며, 특히 라이고 이야기가 천태종의 좌주였던 지엔(慈円)의 『구관쇼(愚管抄)』<sup>27)</sup>를 전거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헤이케모노가타리』의 생성이 엔

25) 『平家物語 上』, p.226

26) 就中に延暦・園城兩寺は、門跡二に相分るといへども、學するところは、是円頓一味の教門におなじ。たとへば鳥の左右の翅の如し。又車の二の輪に似たり。(『平家物語 上』, pp.297-298)

27) 1220년 무렵, 지엔(慈円)이 지은 일본 최초의 사론서. 총 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무(神

랴쿠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 엔라쿠지(延曆寺)와 헤이케(平家)의 대립 구도

지금까지 엔라쿠지를 중심으로 불교 교단 내에서의 분열과 대립 양상이 『헤이케모노가타리』속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엔라쿠지와 헤이케의 대립 구도가 『헤이케모노가타리』속에서 어떻게 엮어지는지 고찰해 보기로 한다.

### 2-1. 헤이케(平家)와의 대립

고시라카와 법황의 근신 사이코(西光)의 아들인 후지와라노 모로쓰네(藤原師經)와 우카와데라(鵜川寺)의 승려가 작은 다툼을 벌이게 되며, 이 다툼은 승려가 본사(本寺)인 하쿠산(白山)<sup>28)</sup>에 제소함으로써 크게 번지게 된다. 이렇게 하여 하쿠산의 세력 2천여 명이 모여 모로쓰네를 추방하기에 이르고, 나아가 엔라쿠지에 호소하기 위해 하쿠산 중궁의 신여를 꾸며 히에이잔으로 흔들며 감으로써 이 작은 다툼은 중앙정권과 엔라쿠지의 대립으로 발전한다.

엔라쿠지의 승려들은 모로쓰네를 옥에 가두고, 그 형인 모로타카(師高)를 유배지로 보낼 것을 호소하지만, 모로쓰네·모로타카의 아버지인 사이코는 고시라카와 법황의 총애를 받는 근신이었으므로 재판이 늦어진다. 이에 분노한 엔라쿠지는 제례를 모두 멈추고 주젠지(十禪寺)·마로토(客人)·하치오지(八王子) 등 세 사찰의 신여를 받들어 모시고 교토로 들어간다. 이것이 소위 미코시부리(御輿振)로, 이 사건 이후로도 엔라쿠지의 승려들이 신여를 받들어 모시고 교토로 들어와 항의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한다.<sup>29)</sup>

옛날부터 산문의 소송은 여타와 달리 각별한 것이었다. 오쿠라교(大藏卿) 다메후사(為房)·다자이노 곤노소쓰(大宰権帥) 스에나카(季仲)는 그렇게도 조정의 중

武)천황부터 준토쿠(順德) 천황까지의 역사를 불교적인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28) 후지산(富士山)·다테야마(立山)와 함께 일본 3대 영산(靈山) 중 하나. 신앙이나 전설로 널리 알려져 있다.  
29) 今成元昭(1998) 『平家物語の物語的空間』, 『平家物語 主題・構想・表現』, 汲古書院, p.245

신이었는데도, 산문의 소송에 의해 유배지로 보내졌다. 하물며 (중신도 아닌) 모로 타카 따위는 하찮은 존재이니 처분하는 데에 무슨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리요라며 서로 이야기들 하고 있었지만, 대신은 자신의 녹봉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간언하지 않았으며, 신분이 낮은 신하는 처벌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의견을 내 놓지 않는다는 식이어서 제각각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었다. (卷一 『願立』)<sup>30)</sup>

위의 인용문은 계속되는 산문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고시라카와 법황이 재판을 늦추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 부분이다. 산문은 조정 중신들의 목숨마저 좌지우지할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그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 아무도 간언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이처럼 두렵게 묘사되고 있는 산문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법황은 계속 재판을 늦추게 되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았던 작은 사건이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된다. 산문의 승려들은 신사의 제례를 모두 제쳐 두고 다시 신여를 들고 교토로 진격한다.

조정과 엔라쿠지의 직접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조정은 헤이케와 겐지 두 무사의 대표에게 진압을 명한다. 이때의 진압군 대장은 헤이케 쪽의 시게모리(重盛)와 겐지 쪽의 요리마사(頼政)였다. 이 두 사람은 두 파로 나뉘어 조정의 각 문을 지키는데, 그 세력은 시게모리가 대략 3000여기, 요리마사는 겨우 300기 정도로 그 차이가 아주 컸다고 『헤이케모노가타리』에는 적혀있다.<sup>31)</sup>

이 진압 과정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래 시게모리와 요리마사는 조정을 보호하는 두 무사 세력이라는 동등한 입장에서 엔라쿠지를 견제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 처했으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르게 대응하게 된다. 헤이케와 겐지의 운명에 대한 암시이기도 한 각 가문의 대표 시게모리와 요리마사의 대응을 통해 엔라쿠지와와의 관련, 또 앞으로의 운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요리마사의 대응을 보면 다음과 같다.

30) 昔より山門の訴訟は他に異なり。大藏卿為房，大宰権帥季仲は，さしも朝家の重臣なりしかども，山門の訴訟によって，流罪せられにき。況や師高などは事の數にやはあるべきに，子細にや及ぶべきと，申しあはれけれども，大臣は祿を重んじて諫めず，小臣は罪に恐れて申さずと云事なれば，をのをの口をとち給へり。(『平家物語 上』, p.129)

31) 『平家物語 上』, p.134

이번 산문의 소송은 도리에 맞는 일임이 당연합니다. 조정의 재판이 늦어지고 진척되지 않는 것은 옆에서 보아도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도 신여를 들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저(요리마사)는 세력이 약합니다. (中略) 제가 신여를 들여보낸다면 인(院)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신여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면, 오랫동안 부처와 산노(山王)를 믿고 예배드린 몸이 오늘부터 무사의 길과 작별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곤란한 것 같습니다. 동쪽 진은 고마쓰도노(小松殿, 시게모리를 뜻함)가 많은 세력으로 진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 진으로 들어가셔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卷一 「御興振」)<sup>32)</sup>

요리마사는 자신이 방어하고 있는 문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산문의 승려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말을 통해 자신도 엔라쿠지를 지지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다. 자신은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지만, 조정에 종사하고 있는 몸이기에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한다는 요리마사의 말에 승려들은 마음이 흔들린다. 사실 승려들은 늦어지는 재판에 대한 항의로서 신여를 메고 항의하러 온 것이지, 무사들에 대한 개인적 감정은 없었던 셈이다. 이런 마음을 잘 파악한 요리마사는 얼마 안 되는 자신의 세력으로 도저히 엔라쿠지의 승도들을 막을 수 없자, 말로 설득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요리마사가 승려들을 잘 타일러 다툼을 막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립을 교묘히 피하면서 승도들을 헤이케의 대장, 즉 시게모리 쪽으로 가게끔 했다는 것이다. 사실 승려들 사이에서도 그냥 요리마사가 지키고 있는 문으로 들어가자는 의견과 요리마사의 말대로 비겁하지 않게 세력이 많은 군을 부수고 들어가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요리마사의 재치 있는 말로 인해 결국 승도들은 요리마사와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많은 병사를 거느린 시게모리가 지키는 문 쪽으로 가게 된다. 이로 인해 결국 엔라쿠지와 헤이케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게 된다. 다음은 이때 시게모리 군의 대응에 대한 인용 부분이다.

32) 今度山門の御訴訟、理運の条勿論に候。御成敗遅々こそ、よそにても遺恨に覚候へ。さては神輿入奉らむ事、子細に及候はず。但頼政無勢候 (中略) 神輿を入奉らば、宣旨を背くに似たり。又ふせぎ奉らば、年来医王山王に首をかたぶけ奉って候身が、けふより後弓箭の道にわかれ候なむず。かれといひ是といひ、かたがた難治の様に候。東の陣は小松殿大勢でかためられて候。其陣よりいらせ給べうや候らむ。(『平家物語 上』, p.135)

그래서, 신여를 앞에 세워, 동쪽 진두 앞의 다이켄몬(待賢門)으로부터 들어가려고 했으므로, 난폭한 다툼이 곧 일어나, 무사들은 마구잡이로 활을 쏘아댔다. 쥬젠지의 가마에도 화살들이 많이 꽂혔다. 진닌(神人)·미야즈카에(宮仕)는 활에 맞아 죽고, 승려들이 많이 부상을 입었다. 신음하며 울부짖는 소리는, 위로는 범천(梵天)까지도 들리고, 아래로는 견우지신(牽牛地神)도 놀랄 것이라 생각되었다. 승려들은 신여를 진두에 버려두고, 울며불며 본산인 히에이잔으로 돌아갔다.

(卷一 『御興振』)<sup>33)</sup>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여 교묘하게 큰 싸움을 피한 요리마사와 달리 시게모리의 무사들은 그 당시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엔라쿠지의 승려들을 향해 활을 겨누고, 급기야는 신여에까지 화살이 맞고 만다. 산노의 권세를 절대시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신여에 화살을 맞힌 행위는 불법에 대한 반역자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작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헤이케가 불법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라는 인상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헤이케가 신들의 벌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 대한 당시의 두려움은 ‘산문의 승려가 신여를 진두에서 혼든 일은 에이큐(永久)로부터 이후 지쇼(治承)에 이르기까지 여섯 번 일어났었다. 그때마다 무사를 불러 이를 막았는데, 신여를 화살로 맞춘 일은 이것이 처음이라고 한다(山門の大衆, 日吉の神輿を陣頭へふり奉る事, 永久より以後, 治承までは六箇度なり。毎度に武士を召てこそふせかるれども, 神輿射奉る事是始とぞ承る)’<sup>34)</sup>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조정과 엔라쿠지의 다툼으로 번질 뻔한 신여 사건은 엉뚱하게도 헤이케와 산문의 대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 반면 겐지는 요리마사의 재치로 엔라쿠지와의 대립도 피했을 뿐더러, 조정에 대한 충성과 불교에 대한 신앙심도 드러냄으로써 조정과 불교 세력의 지지를 바탕으로 세력을 확충해 나가기 시작한다.

33) さて神輿を先立まいらせて, 東の陳頭, 待賢門より入奉らむとしければ, 狼藉忽に出来て, 武士ども散々に射奉る。十禅師の御輿にも箭どもあまた射たてたり。神人宮仕射ころされ, 衆徒おほく疵を蒙る。おめきさけぶ声梵天までもきこえ, 牽牛地神も驚らむとぞおぼえける。大衆神輿をば陳頭にふりすて奉り, 泣々本山へかへりのぼる。(『平家物語 上』, p.136)

34) 『平家物語 上』, p.137

사실 모로타카의 아버지는 고시라카와 법황이 가장 아끼는 근신인 사이코(西光)였기 때문에 쉽게 처벌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판단이 지연되는 것에 분개한 승려들이 강하게 나오자 헤이케로 하여금 이를 막게 함으로써 두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서로를 갈라놓게 만들려는 것이 고시라카와 법황의 속셈이었다. 이에 요리마사의 재치까지 더해져 이제까지 조정과 승려들의 다툼의 성격을 지녔던 상황에서 승려들과 헤이케의 싸움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있는 후, 시게모리 군에 의해 대패한 것에 대해 분노한 승려들과 헤이케가 재차 붙게 될 상황이 벌어진다. 하지만, 다행히 두 세력의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할 위기의 순간에 도키타다(時忠)라는 중재자가 등장하게 된다.

승려들이 난폭한 행위를 하는 것은 마엔(魔縁)의 소행입니다. 천황이 제지하는 것은 부처의 가호입니다. (卷一 「内裏炎上」)<sup>35)</sup>

위의 인용문은 기요모리(清盛)의 처남인 도키타다가 자신의 상투를 자르려는 승려들 앞에서 종이에 붓으로 써서 바친 문장이다. 승려들은 이 두 문장의 글에 감명을 받아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게 되고, 모두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도키타다의 행동에 대해서도 『헤이케모노가타리』는 ‘참으로 훌륭하다(ゆゆしけれ)’며 칭송을 아끼지 않는다. 요리마사와 마찬가지로 헤이케의 도키타다도 신앙심을 앞세워 승도들을 달래면서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있다. 이처럼, 『헤이케모노가타리』는 헤이케의 몰락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다.

이상과 같이 『헤이케모노가타리』는 엔라쿠지 세력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불법을 잘 이해하고 지키려 애쓰는 자에 대해서는 칭송을 아끼지 않으며, 충돌 여부를 좌지우지하는 행동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난폭한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보이는 산문 승도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거의 비판을 가하지 않고, 주변 세력들의 행동 양식에 따라 상황을 기술해

35) 인용 부분 중 텍스트로 취한 日本古典文学大系 『平家物語 上』에 오자(善逝가 善政이라 표기됨)로 파악되는 부분이 있어, 日本古典文学全集 『平家物語 一』(1973), 小学館, p.104를 대신 인용했다.

僧徒の濫悪を致すは魔縁の所行なり。明王の制止を加ふるは善逝の加護なり。

나가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일련의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각 세력과의 다툼이 실제로 확실하게 맞아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헤이케와 관계없이 한쪽에서 일어난 불교 세력과 조정과의 대립이 『헤이케모노가타리』 속에서는 교묘하게 헤이케의 운명과 결부되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어쨌거나 고시라카와 법황의 계약으로 엔라쿠지의 승려들과 부딪히게 된 헤이케는 겐지인 요리마사에 의해 그 대립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도키타다의 지혜로 위기를 모면한 헤이케는 엔라쿠지와 대립 구도에서 화해 구도로 돌연 돌아서게 된다.

## 2-2. 헤이케(平家)의 지지

전술한 바와 같이 엔라쿠지는 고후쿠지나 온조지와는 대립 관계에 있었다. 이로 인해 고후쿠지와 온조지는 가장 강한 세력인 엔라쿠지에 맞서기 위해서 세력을 합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헤이케도 후지와라씨의 우지데라인 고후쿠지와 그다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온조지와도 크게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모치히토오의 모반 사건이다.

모치히토오는 고시라카와 법황의 셋째 아들로 황위에는 오르지 못한 인물이다. 사실 그가 모반을 일으키는 데에는 앞서서도 엔라쿠지와 헤이케의 대립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한 요리마사의 권유가 크게 작용하였다. 요리마사는 헤이케를 멸망시킴으로써 고시라카와 법황을 달래어 황위에 올라야 한다고 모치히토오를 부추긴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구마노(熊野)의 벳토(別堂)<sup>36)</sup>였던 단조(湛増)에 의해 발각이 되고, 이후 모치히토오는 온조지로 도망가는 신세가 된다. 모치히토오는 온조지로 도망을 가기는 했지만, 의지하고 있기에는 온조지의 세력이 너무 약했다. 이에 온조지는 협조를 구하는 서찰을 엔라쿠지와 고후쿠지에 보내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후쿠지는 온조지와 어느 정도 협력 관계에 있었으므로 흔쾌히 승낙했지만, 엔라쿠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의 뜻을 비친다.

36) 헤이안 시대에서 에도 시대 사이에 신노(親王)나 섭정·대신(大臣)의 집안이나 절·신사 등의 특별 기관에 두었던 장관. 특히, 게이이시(檢非違使) 관청의 장관을 가리킨다.

첫째 이유는 앞서도 다루었듯이 서문의 내용 중에 엔라쿠지와 온조지를 동등한 존재로 묘사한 것에 대한 분노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것은 이미 협력 관계를 상실한 불교 내부의 분열을 드러냄과 동시에 다시 한 번 온조지 위에 엔라쿠지가 있다면서 서열을 매기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첫째 이유는 불교계 내부의 문제이므로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이유는 헤이케와의 긴밀한 관계에 기인한 것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게다가 뉴도쇼코쿠(入道相国, 기요모리를 뜻함)가 천태종 좌주인 메이운 대승정에게 승려들을 진정시킬 것을 부탁했으므로, 좌주는 서둘러 히에이잔에 올라가 승려들을 달랬다. (중략) 또한, 기요모리는 오미(近江) 지방의 쌀 2만 석, 호트쿠(北国)의 비단 3천 필을 성의의 표시로 산문에 기증하였다. 히에이잔에서는 이것을 여러 골짜기와 봉우리에 있는 승방에 배분했더니, 급작스런 일이기도 하여 혼자서 많이 취하는 승려도 있었고 빈손으로 하나도 취하지 않는 승려도 있었다.

(卷四 『南都牒状』)<sup>37)</sup>

위의 인용문은 엔라쿠지가 결정적으로 온조지의 편을 들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위 문장을 통해 신여 사건 이후에 자칫하면 대립 관계에 놓일 수 있었던 두 세력이 지금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기요모리의 말에 의해 천태종의 좌주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기요모리의 권위는 종교 세력에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여러 불교 세력 중에서 특히 엔라쿠지의 힘이 가장 강했음을 전제로 할 때 그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이 두 세력을 이어주는 것은 위의 인용문에서도 드러났듯이 재물이었다. 기요모리는 산문에 뇌물의 성격이 강한 재물을 많이 기부했는데, 이러한 기요모리를 엔라쿠지는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헤이케와 고시라카와 범황은 사원세력과 결탁함으로써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

37) 其上入道相国、天台座主明雲大僧正に衆徒をしづめらるべきよしの給ひければ、座主いそぎ登山して大衆をしづめ給ふ(中略) 又入道相国、近江米二万石、北国のおりのべぎぬ三千疋、往来によせらる。これをたにだに嶺々にひかれけるに、俄の事ではあり、一人してあまたをとる大衆もあり、又手をむなうして一もとらぬ衆徒もあり。(『平家物語上』, pp.298~299)

시키려고 하였다. 한편 승려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붙는 양상을 보이며 이해타산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 당연히 승려들은 경제력 군사력에서 월등한 힘을 갖춘 헤이케 쪽에 붙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38)</sup>

엔라쿠지는 사실 고후쿠지나 온조지와 대립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금방 협력 관계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았던 데다가 자신들에게 많은 기부를 하는 헤이케를 굳이 배신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어쨌거나 엔라쿠지가 헤이케의 편을 들게 되는 일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모치히토오의 모반 사건은 실패로 끝나고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모반 사건의 발각과 제지에는 이처럼 엔라쿠지의 헤이케에 대한 협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온조지 내부에서도 헤이케를 도와주는 세력이 있었다. 도와준다고 했던 고후쿠지의 지원군도 늦어져 나타나지 않고, 산문의 승려들이 마음을 돌려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게 된 온조지 측은 급하게 회의를 열어 대책을 세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헤이케 편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 승도의 의리를 저버리고 우리들의 이름을 소중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겐지와 헤이지(平氏)가 좌우로 나란히 경쟁을 하여 조정을 지켰는데, 최근에는 겐지의 운이 기울어 헤이케가 정권을 쥔 지 20여 년이 되었고, 천하에 흔들리지 않는 초목이 없는 것처럼 따르지 않는 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헤이지의 저택 안쪽의 성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소수로는 용이하게 공격하여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곰곰이 다른 계략을 생각하여, 군세를 모으고 후일 공격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卷四 『永僉議』)<sup>39)</sup>

이는 온조지 쪽에 있으나 헤이케와 인연이 깊은 승려의 이야기이다. 겉으로는 겐지의 편인 것처럼 굴고 있지만, 헤이케에 대한 공격을 늦추기 위한 계략인

38) 今成元昭(1978) 『南都北嶺』 『講座日本文学 平家物語 下』, 至文堂, p.172

39) かう申せば平家のかたうどやおぼしめされ候らん。たとひさも候へ、いかが衆徒の儀をもやぶり、我寺の名をおしまで候べき。昔は源平左右にあらそひて、朝家の御まぼりたりしかども、ちかごろは源氏の運かたぶき、平家世をとって二十余年、天下になびかぬ草木も候はず。内々のたちのありさまも、小勢にてはたやすうせめおとしがたし。さればよくよく外にはかり事をめぐらして、勢をもよほし、後日によせさせ給ふべうや候らん。(『平家物語 上』, pp.303~304)

셈이다. 이처럼 비록 온조지와 고후쿠지라는 두 세력이 헤이케와 대립 관계에 있었지만, 가장 큰 세력인 엔라쿠지가 아직 헤이케의 편을 들고 있으며, 위에서 처럼 대립 관계에 있는 불교 세력 내에서조차 헤이케의 편을 들고 있는 자가 있었다.

모치히토오의 모반 사건이 해결된 후, 기요모리는 이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후쿠하라(福原)로의 천도를 실행에 옮긴다. 수도를 옮기는 일을 강행할 만큼의 막강한 권세를 가진 기요모리에게 있어서 조정의 세력이라는 것도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기요모리는 모치히토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온조지에 대해 보복을 가하고 사건 이후 계속해서 반항해 온 고후쿠지에 대해서도 온조지에 협력한 죄를 물어 불태워 버린다. 결국 헤이케와 대립 관계에 있던 두 절을 불태움으로써 헤이케는 자신의 경쟁 상대를 또 하나 해치운 셈이며 가장 강한 불교 세력인 엔라쿠지가 헤이케 쪽에 있음으로써 더할 나위 없는 권세를 휘두르게 된다.

### 2-3. 겐지(源氏)와의 결탁

후쿠하라로의 천도를 둘러싸고는 비난의 소리도 높았고, 부작용도 많았다. 이 천도의 동기에 대해 『헤이케모노가타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번 천도의 동기가 무엇이나고 하면, 옛 수도는 나라·히에이잔이 가까워, 사소한 일에도 가스가 신사의 신목이나 히에(日吉) 신사의 신여 등을 꺼내 들어 소동을 일으켰다. (이에 반해) 후쿠하라는 산이나 바다로 가로막혀 있고 무엇보다도 역시 먼 곳에 있으므로 그러한 일도 간단하게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뉴도 쇼코쿠가 제안한 것이라 한다. (卷五 『都歸』)<sup>40)</sup>

여기서 말하는 나라와 히에이잔은 고후쿠지·온조지·엔라쿠지를 가리킨다. 『헤이케모노가타리』는 기요모리의 후쿠하라 천도의 동기에 대해 불교 세력의 간

40) 今度の都うつりの本意をいかにといふに、旧都は南都・北嶺ちかくして、いささかの事にも春日の神木、日吉の神輿などいひて、みだりがはし。福原は山へだたり江かさなつて、程もさすがとをければ、さ様のことたやすからじとて、入道相国のはからひいだされたりけるとかや。(『平家物語 上』, pp.379~380)

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이다. 위 문장을 통해 엔라쿠지와 헤이케가 겉으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지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서로를 이용하고 있던 것일 뿐, 마음속으로는 성가신 존재로 여기고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다. 기요모리가 이처럼 불교 교단을 꺼리고 있는 상황과 악행의 극치라 표현된 후쿠하라 천도를 함께 묘사함으로써 불교 세력 중 유일하게 헤이케의 편에 있었던 엔라쿠지도 머지않아 헤이케와 대립하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두 세력은 대립 구도로 돌아서게 된다. 6권의 『요코타카와라자센(横田河原合戦)』은 산몬과 헤이케의 움직임이 뒤바꾸는 계기가 되는 장으로 주목할 만하다. 그러면 이전까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친분 관계를 지속시켜 왔던 두 세력이 어떤 과정을 통해 대립하게 되는지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 ① 어떤 자가 말을 흘렸는지 고시라카와 법황이 히에이잔의 승려들에게 명하여 헤이케를 토벌할 것임에 틀림없다는 소문이 돌았으므로, 군병이 은밀히 와서 사방의 진두를 굳게 지킨다. 헤이지의 일족들은 모두 로쿠하라(六波羅)로 달려간다.

(卷六 『横田河原合戦』<sup>41)</sup>)

- ② 히에이잔에 전해 온 것은 헤이케가 히에이잔을 공격하려고 수백 기의 군세를 이끌고 올라온다고 하는 소문이었으므로, 승려들은 모두 히가시사카모토(東坂本)로 내려가 『이를 어찌 하겠습니까』라며 협의한다. (卷六 『横田河原合戦』<sup>42)</sup>)

위의 두 예문은 세상에 떠돌기 시작한 소문에 대한 두 세력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①은 소문에 대한 헤이케 쪽의 반응이고, ②는 그에 대한 엔라쿠지의 반응이다. ①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헤이케는 엔라쿠지가 자신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여 무장을 하고, ②에 드러난 바와 같이 산몬은 무장하는 헤이케

41) 何ものの申出したりけるやらん、一院山門の大衆に仰て、平家を追討せらるべしと きこえし程に、軍兵内裏へ参て四方の陣頭を警固す。平氏の一類みな六波羅へ馳せ集る。(『平家物語 上』, p.429)

42) 山門に又聞えけるは、平家山せめんとて、数百騎の勢を卒して登山すと聞えしかば、大衆みな東坂本におり下つて、『こはいかに』と僉議す。(『平家物語 上』, p.429)

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이 두 세력은 모두 서로의 공격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 아니라, 소문에 의거하여 행동하고 있다. 소문에 의거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은 두 세력 간의 친분 관계가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대변해 주고 있다. 원래의 친분 관계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위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두 세력은 항상 불안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데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실상은 다음과 같다.

실제로는 산문의 승려들이 헤이케를 토벌할 일도 없었다. 헤이케가 히에이잔을 공격할 일도 없었다.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일들이었다.

(卷六 『横田河原合戦』)<sup>43)</sup>

두 세력은 소문에 따라 서로를 의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공격할 계획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럼 왜 이런 소문이 돌게 된 것인가? 이때는 기요모리가 죽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다. 헤이케가 강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기요모리 개인의 힘이 컸던 탓이었기에, 그가 죽자 헤이케의 세력이 급격하게 줄 것이라 생각한 반 헤이케 세력에게서 소문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실 불교 세력 중 가장 큰 세력인 엔라쿠지와 헤이케가 결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설령 기요모리가 죽었다 하더라도 헤이케의 타도가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후에 고시라카와 법황을 중심으로 한 조정의 세력은 산문과 헤이케가 우호적이면서도 서로에 대한 의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교묘하게 잘 이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소문에 지나지 않았던 사건으로 『헤이케모노가타리』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이와 같은 불신의 구조 속에서 두 세력은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입장으로 점차 변화하게 되어 끝내는 갈등과 대립의 관계로 치닫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헤이케 토벌을 위해 교토 입성을 눈앞에 둔 기소 요시나카(木曾義仲)로부터 온조지는 세력이 약하니 엔라쿠지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서신

43) まことには、山門大衆平家を追討せんといふ事もなし。平家、山せめんといふ事もなし。是跡形なき事共なり。(『平家物語 上』, p.429)

이 도착한다. 이 서신을 본 산문의 승려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겐지에 협력하자는 무리도 있었고, 혹은 헤이케의 편을 들자는 무리도 있었던 것이다.

헤이케는 현직의 천황의 외척이며, 히에이잔에 대해서 특히 깊이 귀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헤이케의 번영을 기도해 왔다. 하지만, 헤이케의 악행은 정도를 지나쳐 모든 사람들이 헤이케를 따르지 않게 되었다. 겐지는 최근 수년 간 여러 번의 싸움에서 이겨 운이 열리려고 한다. 어찌 이 히에이잔만이 행운이 다한 헤이케에 붙고 운이 열리는 겐지를 저버릴 수가 있겠는가. (卷七 「返牒」)<sup>44)</sup>

산문의 승려들 사이의 갈등은 산문과 헤이케의 관계 자체에 대한 갈등 구조를 대변해 주고 있다. 산문은 위 인용문에도 드러나 있듯이 여태까지 헤이케의 번영을 기도해 왔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고후쿠지나 온조지와 같은 다른 불교 세력과의 대립 관계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였으며, 가장 큰 세력인 헤이케를 이해타산에 따라 이용한 것에 다름 아니다. 엔랴쿠지가 이해타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헤이케의 운명이 기우는 상황에서 엔랴쿠지의 이러한 움직임은 어찌면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엔랴쿠지는 자신들이 헤이케를 등지려는 것에 대해 헤이케의 악행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정당화시키고 있다. 또한, 위의 인용문은 운이 다한 헤이케가 앞으로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임과 동시에 겐지의 운이 열리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불교 교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적 세력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시대적 상황도 엿볼 수 있다.

헤이케는 히에이잔의 움직임에 모른 채, 「고후쿠지·온조지 두 절은 (우리에게 대해) 울분을 품고 있으므로 피어도 결코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히에이잔의 원한을 살 일을 한 적이 없으며, 히에이잔 또한 우리 일가에 대해서 불충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산노다이시에게 기원하여 3천의 승려를 아군 편으로 하고 싶다」며 (후략) (卷七 「平家山門連署」)<sup>45)</sup>

44) 平家は当代の御外戚、山門ををいて帰敬をいたさる。されば今に至るまで彼繁昌を祈誓す。しかりといへども、悪行法に過て万人是を背く。(中略) 源氏は近年よりこのかた、度々のいくさに討勝て運命ひらけんとす。なんぞ当山ひとり宿運つきぬる平家に同心して、運命ひらくる源氏をそむかんや。(『平家物語 下』, pp.87~88)

엔라쿠지가 겐지의 편을 들기로 한 상황에서 그것을 모르는 헤이케는 뒤늦게 위와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이 서신의 내용은 헤이케가 처한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고후쿠지, 온조지와는 이미 사이가 틀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전술한 불교 교단 내부의 대립 상황을 통해 엔라쿠지도 그 두 절과 대립 관계에 있었음은 이미 살펴 본 바 있다. 따라서 같은 적을 가지고 있는 두 세력은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불교 세력이라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대의 흐름, 즉 이해타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여러 이유에서 헤이케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히에이잔으로서도, 운이 다해 가는 것이 뚜렷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편을 들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그 사실에 대해서는 헤이케도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더욱 승려들을 자신의 편으로 삼고 싶었던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간발의 차이로 늦게 도착한 헤이케의 서신에 대해 산문의 많은 승려들이 동정심을 느꼈지만, 이미 겐지에게 협력하겠다는 답장을 보낸 상황에서 경솔하게 그 뜻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sup>45)</sup> 이처럼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느껴지는 상황 설정을 통해 『헤이케모노가타리』는 헤이케의 운명을 더욱 극적인 것으로 만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헤이케모노가타리』에서 불교 세력에 대한 묘사는 작품의 전반부가 끝나는 이 시점 이후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이와 같은 묘사 이후에 곧바로 헤이케 일족이 줄줄이 수도를 떠나 유랑하게 되는 장면이 그려지게 된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모노가타리 구조의 이면에는 헤이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산문 세력의 이반이 헤이케의 몰락과 직결되었다는 것이 드러나 있는 셈이다.

또한, 이후 겐지와 고시라카와 범황이 결탁한 상황에서 산문이 범황을 은둔시키는 상황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나타나는데, 이로써 최대의 불교 세력인 엔라쿠지가 당시의 실세와 결탁하였고, 그 결탁의 향방이 결국 헤이케와 대립하는 쪽으로 정해졌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되는 셈이다. 『헤이케모노가타리』는

45) 平家はこれをしらずして、『興福園城兩寺は鬱憤をふくめる折節なれば、かたらふ共よもなびかじ。当家はいまだ山門のためにあたをむすばず、山門又当家のために不忠を存ぜず。山王大師に祈誓して、三千の衆徒をかたらはばや』(『平家物語 上』, p.89)

46) 大衆まことに事の体をば憐みけれども、『既に源氏に同心の返牒をおくる。今又かろがろしく其儀をあらたむるにあたはず』とて是を許容する衆徒もなし。(『平家物語 上』, p.92)

정토사상 등의 불교 사상만을 그 저변에 끼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불교 세력의 다툼을 헤이케의 운명과 결부시켜 엮어냄으로써 당시의 말세적인 상황을 그려내려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헤이케모노가타리』 전반부의 각 권들이 불교 세력이 멸망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그런 상황으로 인해 이 세상이 멸망에 가까워지며 더불어 헤이케의 멸망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 III. 결론

지금까지 『헤이케모노가타리』에 등장하는 불교 세력 중 가장 중심으로 그려지고 있는 엔라쿠지의 동향을 통해 헤이케의 멸망 구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 대립구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엔라쿠지는 『헤이케모노가타리』에서 다른 큰 두 불교 세력인 고후쿠지·온조지와 대립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기요모리의 경우도 엔라쿠지의 사정과 마찬가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두 세력은 힘을 합치게 된다. 하지만 엔라쿠지는 기요모리와 깊은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기보다, 기요모리의 기부나 다른 사원들과의 대립 등에 의해 이해타산적으로 움직였으므로 겐지의 세력이 부상하기 시작하자 겐지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헤이케모노가타리』는 엔라쿠지의 이러한 이동이 헤이케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헤이케의 운명이 엔라쿠지의 동향과 맞물려 멸망해 가는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엔라쿠지의 신성하고 강력한 이미지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불교 세력들이 멸망해 가는 과정을 통해 말세적인 세상에 대한 한탄을 담고 있다.

불교 세력들에 대한 묘사에서는 다른 두 절 고후쿠지와 온조지보다 엔라쿠지가 훨씬 우위에 있음을 반복해 드러냄으로써 『헤이케모노가타리』의 작자가 엔라쿠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헤이케모노가타리』의 가타리테는 여러 사찰들에 대한 기요모리의 만행을 비난하면서 그를 불법 전체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요모리의 만행을 비판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

다. 이는 불교 세력 간의 대립에 관해 상당 부분이 할애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난토·호쿠레이에 관한 서술은 불교 신앙의 권화(權化)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불교 교단의 움직임에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기술하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헤이케모노가타리』에는 이처럼 종교 사상과는 별도로 각 세력의 동향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헤이케모노가타리』는 사원 세력의 동향을 반 헤이케 세력의 결집으로 보거나, 혹은 불교의 파멸을 헤이케의 악업과 연결시키고 있지만은 않다. 『헤이케모노가타리』의 주제가 헤이케의 흥망성쇠를 그리려고 했던 것이라면 사원과 관련된 기술이 이처럼 자세하게 그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요컨대 『헤이케모노가타리』는 헤이케 멸망 구도와 세상의 동란 속에서 분열하고 멸망하는 불교 세력의 동향을 함께 엮어냄으로써 당시 시대상을 생생하게 담아내고자 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石母田正(1957) 『平家物語』, 岩波書店, pp.182~190
- 市古貞次 校注(1973) 日本古典文学全集, 『平家物語一』, 小学館, p.104
- 市古貞次, 久保田淳外(1978) 『講座 日本文学 下』, 至文堂, pp.76~96, pp.160~177
- 今成元昭(1978) 『南都北嶺』 『講座日本文学 平家物語 下』, 至文堂, pp.160~177
- \_\_\_\_\_ (1982) 『平家物語の仏教思想』 『国文学 解釈と鑑賞』, 至文堂, pp.73~79
- \_\_\_\_\_ (1998) 『平家物語の物語的空間』, 『平家物語 主題・構想・表現』, 汲古書院, p.245
- 今野達外(1994) 『日本文学と仏教 第八卷 仏と神』, 岩波書店, pp.3~32
- 梶原正昭(1998) 『平家物語 主題・構想・表現』, 汲古書院, pp.238~255
- \_\_\_\_\_ (1982) 『別冊国文学 平家物語必携』, 学灯社, pp.6~100
- 神田秀夫外 校注(1995) 日本古典文学新全集 『方丈記 徒然草 正法眼藏随聞記 歎異抄』, 小学館, p.257
- 小林智昭(1964) 『中世文学の思想』, 至文堂, pp.124~144
- 高木市之助外 校注(1984) 日本古典文学大系 『平家物語 上』, 岩波書店, pp.112~429
- \_\_\_\_\_ (1984) 日本古典文学大系 『平家物語 下』, 岩波書店, pp.87~88, p.92
- 時枝誠記(1986) 『平家物語はいかに読むべきかに対する一試論』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平家物語』, 有精堂, pp.170~204

富倉徳次郎(1966~1968) 『平家物語全注釈 上巻』, 角川書店, pp.99~659

\_\_\_\_\_ (1966~1968) 『平家物語全注釈 中巻』, 角川書店, pp.11~280

山下宏明(1995) 『琵琶法師の平家物語』,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 学灯社, pp.14~22

- ❖ 투고일 : 2007. 12. 31.
- ❖ 심사일 : 2008. 1. 25
- ❖ 심사완료일 : 2008. 2. 10.